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자원 이전: 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Parental Support for Cost of Marriage Formation an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고선강**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financial transfers between married women aged 20-40 and their parents and parents-in-law. In particular,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reciprocity between parental support for the cost of marriage formation an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from married children to their parents and parents-in-law. Data from the 2009 wave of the 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analyzed. Among married women who have been married for over 16 years, we find that the probability of them giving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parents increases in line with the parental support they received to help their marriage formation cost. Therefore, we confirm that there is reciprocity between parental support for the cost of marriage formation cost and children's financial support provision for parents.

Key Words : 경제자원 이전(financial resource transfer),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결혼비용(marriage formation cost), 신혼집 마련 자금(first-home cost), 호혜성(reciprocity), 결혼및출산동향조사(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 이 논문은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I. 서론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초혼 연령의 상승은 결혼의 지연 또는 기피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통계청(2012)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9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1세로 1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여 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가 상승하였다. 주된 혼인 연령층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중 30대 초반의 상승폭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여성의 경우도 20대 이하의 연령층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에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0년 가족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결혼에 드는 비용이 남녀 합하여 평균적으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소득 대비 높은 주택 가격은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혼집으로 전세를 마련하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하고 모기지나 전세자금을 위한 금융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신혼부부 스스로 신혼집 마련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이소영, 2011). 예비부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결혼관련 비용을 양가 부모가 함께 부담하게 되고,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은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세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 생명보험회사의 은퇴에 관한 설문조사(한국경제신문, 2012.6. 26)에서 조사대상자 600명 중 2/3가 자녀의 결혼비용 준비가 은퇴생활 설계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과도한 결혼 관련 비용은 결혼을 계획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심각한 경제적 문제임을 의미한다.

결혼은 가정의 경제자원관리 측면에서 성장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계를 형성

하고 독립적인 경제생활 단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결혼자금 지원이라는 경제자원 이전을 하고, 자녀는 부모의 도움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계를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빈번하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주택마련,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 등 결혼한 자녀의 경제적 필요와 요구가 발생하면 부모는 경제자원 이전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고선강, 2011; 김지경·송현주, 2008; 이윤정·고선강, 2011). 자녀가 부모가 계와는 별개의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형성하였지만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면 육아를 지원하고, 맞벌이 가족이 되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등의 여러 생활영역에서 자녀가족을 도와주게 된다.

부모 자녀 간의 세대 간 자원이전 행동에서 경제자원, 돌봄제공, 가사노동제공에 대해 서로 보완적 관계로 보는 견해와 대체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자원 이전을 통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게 한다면 이는 대체적 관계에서 비롯된 세대 간 자원이전 행동으로 보며, 반대로 경제자원을 이전하고, 동시에 돌봄이나 가사노동도 제공한다면 이는 보완적 관계에서 비롯된 세대 간 자원이전 행동으로 본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자원과 돌봄제공, 가사노동제공 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현재 및 미래의 자원배분과 장기적인 자원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이나 신혼집마련 비용을 지원받은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 부모자녀 간 경제자원

이전의 호혜성이 발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이 자녀의 결혼이후의 경제자원 이전과 관계가 있는지, 결혼자금 지원의 연장선에서 부모의 경제자원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경제자원 지원 뿐 아니라 다른 생활영역의 도움도 함께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자원이전을 연구하고, 노부모 부양, 돌봄 제공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Henretta, 1997; Koh & MacDonald, 2006; 고선강, 2008; 고선강, 2012), 부모의 신흥기 자금지원과 결혼 이후의 자원이전의 관계를 연관시켜 접근하거나 자원이전의 호혜성의 시각에서 다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자녀와 부모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40대의 자녀와 그 부모와의 자원이전에서 다양한 자원들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성인기 자녀의 관점에서 결혼비용이나 신흥집 마련 등과 같은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이 결혼 이후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종류의 자원이전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결혼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 정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과 호혜성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에 많은 경제자원을 투입한다. 자녀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된 경제

단위를 구성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은 한 가족 또는 확대가족 안에서(intra-family) 서로 다른 가계 간(inter-household)의 자원이전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자원 이전은 주택마련,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 결혼, 회갑, 병원비 등 일정규모 이상의 목돈이 오고 가는 경우와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일상생활에 지출되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금전이 이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상생활에 사용될 용도의 경제자원 이전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측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목돈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을 관찰해야 측정이 가능하다.

부모와 성인자녀가 서로 경제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호혜성에 기초한 행동인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문은 지속되어왔고, 특히 장기적으로 경제자원 이전은 호혜적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부모 자녀 간 경제자원 이전이 호혜적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미래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교환이론 관점에 기초한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을 수혜할 사람이 미래에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 예상하는 자원에 대한 흥정에 의해 결정된다.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미래에 기대되는 보상이 현재 자신의 자원제공 행동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고 예상될 때 자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자원제공에 대한 보상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 (Sabatelli & Shehan, 1993; 고선강, 2011).

부모 자녀 간 단기간 자원 교류에 관한 연구

들에 의하면 자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수혜도 받아 상호 교류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 간에 경제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비율이 연구표본의 약 2%였고, 김지경·송현주(2008)는 한국노동패널에서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의 경제자원 이전을 분석한 결과 약 27%가 경제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분석한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는 기혼성인자녀가 어머니와 경제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비율이 5.6%로 나타났다. 세대 간 지원교환유형에 관해 연구한 한민아·한경혜(2004)는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으로 자원이전의 유형이 구분하고 각각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경제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비율이 전체 연구표본의 21.2%로 나타났고, 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경우를 호혜적 교환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 자원의 제공과 수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부모로부터 자원을 수혜한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였는가, 즉 받은 것의 보상의 차원에서 자원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원이전의 호혜성 검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선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어떤 시점에 자원을 수혜 받고, 그 이후에 자원을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하여야 과거의 자원 수혜가 미래의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Henretta 등(1997)의 연구는 과거에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자원이 현재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여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주장한 연구이다. 한분의 부모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 중 누가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가를 결정하는데에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

험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발견되었다. 같은 부모 아래의 자녀들 중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자녀가 현재 홀로된 부모를 돌볼 가능성이 높았고, 다른 관련 변인들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가장 컸다. Koh와 MacDonald(2006)도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현재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자원, 돌봄, 시간자원, 부모와의 동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과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현재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돌봄과 시간자원 제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현재 노부모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거나, 가사일을 돕는 시간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 중 고선강(2008)의 연구는 치매부모와 자녀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한 연구이다. 부모가 자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상황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이 호혜성에 근거한 것인가를 연구한 논문이다.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거나, 가사노동, 육아지원을 한 경우 자녀는 현재 치매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현재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 과거에 받은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에 유산상속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재 치매부모를 방문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이전 행동이 과거의 자원수혜에 대한 보답의 성격인 동시에 미래에 돌아올 보상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 호혜적 성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0-60대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연구한 고선강(2012)은 50-60대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미래에 노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의향이 높아지며, 미래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재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과거의 자원수혜가 미래의 자원제공 가능성에, 미래의 자원 수혜 가능성이 현재의 자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50-60대 자녀와 노부모 사이에 발견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 자녀 사이의 자원이전 행동이 호혜적 성격이 있고, 경제자원 이전에서도 호혜성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이 중노년기 자녀와 노부모의 세대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이른 시기의 생애과정에 있는 부모 자녀 간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경제자원 이전 관련 요인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경제자원 이전과 관련된 변인들을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은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경제자원 이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경과 송은경(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때 연령이 40대 미만인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선강(2011)은 40-60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때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고, 반대로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할 때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20-40대 미혼성인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 경제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낮았으나, 기혼자녀의 경우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제자원 제공자의 교육수준도 경제자원 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

수의 선행연구들은(김순미·박미려, 2008; 김지연, 2006; 강성진·전형준, 20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는 경제자원의 제공자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기혼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고선강(2011)은 40-60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수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자녀의 교육수준은 노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원 제공자와 수혜자의 취업 상태는 경제자원 이전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지경과 송은경(2004)은 취업을 한 경우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취업 상태이면 경제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윤정과 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도 미혼 성인자녀가 비취업 상태인 경우 어머니로부터 경제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았다. 어머니가 취업 상태이면 성인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은 낮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경제자원의 제공과 수혜에 매우 유의미한 변인이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Koh와 MacDonald(2006)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소득과 자산으로 측정하였는데,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집단인 경우 성인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거나,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는 가구소득과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자원 제공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확률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와 비교하여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고선강(2011)은 경제자원 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 40-60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데에 부모의 자산 수준, 근로소득 유무, 금융소득 유무, 사회급여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 변인들이었다. 부모의 순자산 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경우 중간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회급여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 김지연(2006)은 자녀 가구의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고선강(2008)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연구에서도 자녀의 자산상태가 낮은 경우 자산상태가 중간 수준인 경우와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기혼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경제자원 이전 행동을 살펴보면, 이들의 자녀 관련 특성과 부모관련 특성도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녀 유무 또는 자녀의 수, 부모생존 여부 등이 관련 요인으로 보인다. 이윤정과 고선강(2011)의 연구에서 20-40대의 기혼자녀가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지경과 송현주(2008)는 손자녀의 유무가 분가한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에 액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고선강(2011)은 40-60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자원을 제공을 분석하였는데, 손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자원 제공 확률이 약 2.7배 높아지며, 그 영향력의 크기가 분석모형의 다른 변수들과 비교하여 가장 크다고 하였다.

기혼자녀의 부모의 생존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김순미와 박미려(2008)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자원 이전에 관한 분석에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경제자원을 수혜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윤정과 고선강(2011)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의 확률이 높은 반면, 미혼 성인자녀가 어머니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성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고선강(2011)은 40-60대의 부모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 가정과 양가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에 관한 분석에 사용할 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경제자원 이전의 장기적 호혜성 분석을 위하여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 관련 변인들과 다른 종류의 자원이전 행동을 포함하였다.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취업), 가계 특성(가계소득, 집소유, 가구원수), 자녀와 부모 특성(자녀 유무, 부모 생존)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혼여성 가정과 양가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결혼비용과 신혼집 마련 자금을 부모에게 지원을 받았는가, 스스로 마련했는가와 현재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부모가 기혼여성 가정에 제공한 자원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2. 기혼여성의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부모와

의 경제적 자원이전 양상은 어떠한가?

3. 부모의 결혼관련 자금 지원과 현재의 경제 자원 이전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혼여성의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4. 기혼여성 가정의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부모의 결혼관련 자금 지원이 현재 경제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분석 자료 및 연구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 206개 표본조사구 내 총 10,211 가구를 포함하였고, 이 중 20-44세 기혼여성 3,585명의 조사자료가 확보되었다(이삼식 외, 2009). 본 연구의 표본은 3,585명의 기혼여성에 대한 조사 자료와 가구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출되었다.

조사대상 기혼여성들 중 원국적이 한국이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1인 이상 있고,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 중 1인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에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기혼여성 3013명이 연구표본으로 추출되었고, 분석 단위는 기혼여성 가정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지원수혜와 경제자원제공이다. 경제지원수혜는 지난 1년간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생활비, 양육비 등)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를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 않음’, ‘전혀 받지 않음’ 4점으로 측정된 문항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경제적 도움의 유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혀 받지 않음’을 0으로,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 않음’을 1로 코딩하였다. 경제자원제공은

‘지난 1년간 친정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을 드리거나 병수발 등으로 보살펴 드린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데 부담 정도를 묻는 문항을 교차 확인하여 경제자원 제공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1로 코딩하였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0로 코딩하였다.

결혼자금 관련 변인으로 ‘신혼집’과 ‘결혼비용’은 부부가 스스로 마련한 경우는 1로 코딩하였고,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부모와 부부가 함께 부담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자원이전 관련 변인들로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이외의 자원이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육지원수혜와 가사노동수혜가 있다. 이 두 변수도 ‘지난 1년간(친정·시댁)부모님께 자녀양육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지난 1년간(친정·시댁)부모님께 집안일 등 가사(식사, 청소)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전혀 받지 않음’은 0으로 코딩하고,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 않음’,이라고 답한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연령은 만연령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중퇴 이상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0으로 코딩하였다. 취업은 취업한 경우 1, 취업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기혼여성 가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로 가계소득, 집소유, 가구원수, 취학전자녀, 초등자녀, 부모생존이 있다. 가계소득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되었고, 분석 모형에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투입하였다. 집소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자기소유라고 답하거나,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가구원수는 현재 기혼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의 수이고, 취학전자녀와 초등자녀는 각각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	coding	빈도 (평균)	비율 (표준편차)
종속 변수	경제지원수혜	0=없음	1879	66.6
		1=있음	944	31.4
	경제지원제공	0=없음	1959	65.0
		1=있음	1054	35.0
독립 변수	신혼집	0=부모 도움 받음	1292	42.9
		1=스스로 마련	1721	57.1
	결혼비용	0=부모 도움 받음	1494	50.1
		1=스스로 마련	1490	49.9
양육지원수혜	0=없음	1852	65.9	
	1=있음	960	34.1	
가사노동수혜	0=없음	1975	70.2	
	1=있음	839	29.8	
통제 변수	연령		36.67세	4.80세
		20-24세	19	0.6
		25-29세	256	8.5
		30-34세	691	22.9
		35-39세	1058	35.1
		40-44세	989	32.8
	결혼기간		11.54년	5.68년
		5년 이하	511	17.2
		6-10년	782	26.3
		11-15년	860	28.9
	교육수준	16년 이상	818	27.5
		중학교 이하	61	2.0
		고등학교	1618	53.7
	취업	대학 이상	1334	44.3
		0=비취업	1860	61.7
	가구소득	1=취업	1153	38.3
		3개월 평균 가구소득	327.89만원	165.29만원
	집소유	0=무주택 가구	1064	35.3
		1=한채 이상의 주택 소유	1949	64.7
	가구원수		3.90명	0.77명
	취학전자녀	0=없음	1584	52.6
		1=있음	1429	47.4
	초등자녀	0=없음	1608	53.4
		1=있음	1405	46.6
	부모생존	생존 부모 수	3.20명	0.92명
	부생존	0=사망	735	25.1
		1=생존	2193	74.9
	모생존	0=사망	231	7.8
1=생존		2730	92.2	
시부생존	0=사망	935	32.3	
	1=생존	1963	67.7	
시모생존	0=사망	332	11.3	
	1=생존	2606	88.7	

취학전 자녀가 있으면 1,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생존은 기혼여성의 부모와 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각각 부생존, 모생존, 시부생존, 시모생존을 1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경제자원 이전과 다른 종류의 자원이전의 관계 분석,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경제자원 이전, 결혼자금 마련과 경제자원 이전의 관계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표를 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였다.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신흠자금 마련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20.0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자원들의 관계

조사대상 기혼여성 가정이 양가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원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자원과 양육지원, 가사노동 간의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지원받은 경우의 75.8%는 양육지원을 받았고, 68.4%는 가사노동 도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원을 지원받지 않은 기혼여성 가정의 87.3%는 양육지원도 받지 않았고, 89.9%는 가사노동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자원과 양육지원, 가사노동 도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자원과 양육지원의 상관관계수가 .629, 경제자원과 가사노동의 상관관계수는 .601로 나타나 양가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 경우, 양육지원이나 가사노동 도움도 함께 받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40대 기혼여성이 양가 부모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표 2> 부모로부터 자원이전: 경제자원, 양육지원, 가사노동

			양육지원		가사노동	
			받지 않음	받음	받지 않음	받음
경제자원	받지 않음	n	1629	236	1687	190
		%	87.3	12.7	89.9	10.1
	받음	n	222	694	288	623
		%	24.2	75.8	31.6	68.4
χ^2			1007.89***		1099.21***	
상관계수						
			양육지원		가사노동	
경제자원			.629***		.601***	

***p< .01

〈표 3〉 기혼여성의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부모와의 자원이전

			기혼여성의 연령					χ^2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경제자원 수혜	받지 않음	n	8	133	390	659	689	54.98***
		%	42.1	55.4	60.7	66.0	74.6	
	받음	n	11	107	252	339	235	
		%	57.9	44.6	39.3	34.0	25.4	
경제자원 제공	제공 안함	n	14	193	461	693	598	22.734***
		%	73.7	75.4	66.7	65.5	60.5	
	제공 함	n	5	63	230	365	391	
		%	26.3	24.6	33.3	34.5	39.5	
			기혼여성의 결혼 기간				χ^2	
			5년 이하	6-10년	11-15년	15년 이상		
경제자원 수혜	받지 않음	n	273	462	551	568	42.289***	
		%	57.2	62.6	68.6	73.8		
	받음	n	204	276	252	202		
		%	42.8	37.4	31.4	26.2		
경제자원 제공	제공 안함	n	363	529	549	483	23.701***	
		%	71.0	67.6	63.8	59.0		
	제공 함	n	148	253	311	335		
		%	29.0	32.4	36.2	41.0		

***p< .01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도 주고, 손자녀 양육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어, 결혼한 자녀는 부모에게 다방면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혼여성의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

기혼여성과 양가부모와의 자원이전 행동이 자녀들의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연령을 5세 단위로 나누어서 5개 집단으로 만들고, 결혼기간은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으로 나누어 4개 집단으로 만들었다. 결혼기간의 4개 집단은 빈도 분포를 고려하고 4분위수(25% 6년, 50% 11년, 75% 16년)를 구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 비율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자원 제공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혼기간에 따른 변화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양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받는 기혼여성들의 비율이 42.8%,

6-10년 사이의 집단은 37.4%, 11-15년 사이의 집단은 31.4%, 15년 이상은 26.2%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자원 수혜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았다.

3.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자원 이전의 관계

기혼여성이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양가 부모로부터 지원 받은 것과 현재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표 4>는 양가 부모에게 결혼비용 도움을 받은 경우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이전을 받은 비율이 31.7%, 결혼 비용을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 경제자원 이전을 받는 비율이 35.1%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값이 신뢰수준 90%에서 유의하였다. 부모로부터 신혼집 마련 비용 도움을 받았는지와 현재 경제자원 수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카이제곱 검증방법의 특성 상 분석 사례수가 많은 경우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결혼관련 자금 지원과 현재 자녀의 경제자원 수혜의 관계에서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 신혼집 마련 자금 지원과 기혼여성의 양가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의 39%가,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의 38.9%가 현재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결혼관련 자금을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이다.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과 결혼 후의 부모와의 경제자원 교류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혼기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모

의 결혼 자금 지원과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16년 이상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은 결혼비용과 신혼집 마련 비용을 양가 부모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에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가 결혼자금에 도움을 준 경우의 46.9%가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반면, 결혼 비용을 스스로 마련한 경우의 37.9%만이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양가 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의 47%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부부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는 38.3%만이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과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결혼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기간이 1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신혼집을 스스로 마련한 사람들의 30.8%가 지난 1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신혼집 마련에 부모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20.8%만이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결혼기간이 긴 경우 신혼집 마련을 스스로 한 사람들이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과 부모의 결혼관련 자금 지원과의 관계는 결혼기간 6-10년, 16년 이상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혼기간이 6-10년, 16년 이상인 경우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련한 사람들보다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기간이 16년 이상인 기혼여성들 중 양가 부모가 신혼집 마련에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 스스로 마련한 경우와 비교하여

〈표 4〉 부모의 결혼관련 자금지원과 경제자원 이전

			결혼비용		신혼집	
			부모 도움	스스로 마련	부모 도움	스스로 마련
경제자 원 수혜	받지 않음	n	960	908	816	1063
		%	68.3	64.9	66.7	66.5
	받음	n	446	491	408	536
		%	31.7	35.1	33.3	33.5
χ^2		3.591*		.011		
경제자 원 제공	제공 안함	n	908	1016	787	1158
		%	61.0	68.2	61.1	67.4
	제공	n	581	473	502	559
		%	39.0	31.8	38.9	32.6
χ^2		17.129***		13.156***		

결혼기간 별 결혼관련 비용마련과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

결혼기 간	경제자원 수혜	결혼비용		신혼집		경제자원 제공	결혼비용		신혼집			
		부모 도움	스스로 마련	부모 도움	스스로 마련		부모 도움	스스로 마련	부모 도움	스스로 마련		
5년 이하 (n=523)	받지 않음	n	120	162	107	177	제공 안함	n	168	201	152	221
		%	53.1	62.1	53.0	61.7		%	69.1	72.8	71.4	71.3
	받음	n	106	99	95	110	제공	n	75	75	61	89
		%	46.9	37.9	47.0	38.3		%	30.9	27.2	28.6	28.7
χ^2		4.00**		3.68*		χ^2	.856		.001			
6~10년 (n=394)	받지 않음	n	88	121	81	130	제공 안함	n	118	163	114	171
		%	53.7	60.8	52.9	61.3		%	66.3	76.9	71.7	72.8
	받음	n	76	78	72	82	제공	n	60	49	45	64
		%	46.3	39.2	47.1	38.7		%	33.7	23.1	28.3	27.2
χ^2		1.88		2.56		χ^2	5.39**		0.54			
11~15년 (n=1043)	받지 않음	n	287	338	256	371	제공 안함	n	352	419	322	453
		%	59.5	60.2	57.1	62.0		%	68.1	70.8	68.2	70.6
	받음	n	195	223	192	227	제공	n	165	173	150	189
		%	40.5	39.8	42.9	38.0		%	31.9	29.2	31.8	29.4
χ^2		0.54		2.56		χ^2	.94		.71			
16년 이상 (n=767)	받지 않음	n	322	244	281	287	제공 안함	n	243	238	197	286
		%	75.8	71.3	79.2	69.2		%	54.0	65.6	53.1	64.0
	받음	n	103	98	74	128	제공	n	207	125	174	161
		%	24.2	28.7	20.8	30.8		%	46.0	34.4	46.9	36.0
χ^2		1.91		9.88***		χ^2	11.12***		9.93***			

*p< .1 **p< .05 ***p< .01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할 당시 부모로부터 받았던 도움과 현재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행동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고, 결혼 기간이 16년 이상으로 오래된 사람들에게서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발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발견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4. 자녀결혼 후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이 결혼 후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 관련 변수들을 통제된 상황에서 경제자원 제공, 경제자원 수혜를 각각 종속변수로 한 두 개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결과 해석은 두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비교 해석하고, 경제자원 수혜 모형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해석, 경제자원 제공 모형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해석의 순서로 하였다.

먼저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신혼집이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집을 스스로 마련한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확률이 낮아졌고,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결혼 후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확률이 높았다. 앞서 교차분석 결과 <표 4>에서 나타났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된 후에도 양가 부모의 신혼집 마련 자금 지원은 결혼 후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향성을 증가시켰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와 결혼한 자녀 간 자원이전의 장기적 호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녀의 독립된 경제생활 형성을 돕는 것으로 부모 가계와 자녀 가계 간 경제자원 이전의 시작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 가계의 시작 시점에 제공한 경제자원이 자녀 결혼 후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에 대한 연구들(Henretta 외, 1997; Koh & MacDonald, 2006)은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발견되지만, 형태가 다른 자원들의 교류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장기적 호혜성을 경제자원 교류 안에서 발견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자원 이전의 호혜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들(고선강, 2008; 고선강, 201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분석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 결혼 자금 지원과 결혼 후 경제자원 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다른 자원이전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자원 수혜 모형에서는 양육지원수혜, 가사노동수혜, 경제자원제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경제자원 제공 모형에서는 가사노동수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양가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거나, 가사노동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할 확률이 높아졌다.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할 확률이 낮아졌다. 기혼여성 가계는 부모로부터 양육지원, 가사노동, 경제자원 지원을 함께 받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어, 부모들이 결혼한 자녀를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기혼여성 가계와 양가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이 단기적 측면에서 호혜적인 관계는 아님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경제자원 제공 모형에서 가사노동수혜와 경제자원 제공이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가사노동 도움을 받는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단기적 측면에서 호혜적 관계가 성립함을 지지하는 것이다.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제변수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자원 수혜 모형에는 취업, 가계소득, 가구원수, 초등자녀, 부생존이고, 경제자원 제공 모형에는 연령, 가계소득, 부생존, 시부생존, 시모생존이다. 양가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수혜에는 기혼여성이 취업을 한 경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자원 수혜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표 5〉 기혼여성 가정과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의 영향 요인

독립·통제 변수 (준거집단)		경제자원 수혜 (n=2573)		경제자원 제공 (n=2573)		
		B	odds ratio	B	odds ratio	
독립변수	신혼집(부모도움)	.044	1.045	-.290***	.748	
	결혼비용(부모도움)	-.030	.970	-.118	.889	
	양육지원수혜(없음)	2.024***	7.566	.128	1.137	
	가사노동수혜(없음)	1.748***	5.742	.349**	1.417	
	경제자원제공(없음)	-.603***	.547			
	경제자원수혜(없음)			-.605***	.546	
통제변수	개인	연령	-.004	.996	.031**	1.032
		가계	.070	1.072	.072	1.075
		부모	-.305**	.737	.060	1.062
	가계	가구소득(ln)	-.527***	.590	.635***	1.887
		집소유(무주택)	-.053	.948	-.005	.995
		가구원수	-.151*	.860	.009	1.009
		취학전자녀(없음)	-.102	.903	-.007	.993
	부모	초등자녀(없음)	.272**	1.313	.016	1.016
		부생존(사망)	.310**	1.363	-.365***	.694
		모생존(사망)	-.261	.770	.119	1.127
		시부생존(사망)	.118	1.125	-.351***	.704
		시모생존(사망)	.206	1.229	.248*	1.282
상수항		1.514	4.543	-5.065	.006	
모델 χ^2		1179.496***		160.02***		
-2 log likelihood		2056.30		3169.817		
Nagelkerke R ²		.514		0.083		

*p< .1 **p< .05 ***p< .01

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여성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기혼여성의 어머니, 시부모의 생존 여부는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기혼여성 가정이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시부모 보다는 친정 아버지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자원 제공 모형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양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 부모의 생존 여부가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고, 기혼여성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각각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아버지, 시아버지의 부재는 부모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여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은 결혼기간 5년 이내, 결혼기간 16년 이상인 기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앞의 <표 4>에서 결혼기간 5년 이내와 16년 이상의 집단에서 부모의 신혼 자금 지원과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의 로지스틱 회귀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과 해석은 각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경제자원 이전의 장기적 호혜성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신혼집, 결혼비용)을 4개의 모형에서 살펴본 후 다른 자원이전 변수들(양육지원수혜, 가사노동수혜, 경제자원제공·수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제변수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 모형에서 결혼관련 자금지원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기간 5년 이하인 집단에서는 부모가 결혼비용을 지원해 준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신혼집 마련을 도와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신혼집 마련 자금과 신혼집을 제외한 결혼비용의 특성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목돈이 필요하여, 자녀의 신혼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산 증여의 의미가 크다. 반면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은 신혼집 마련에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고 자산으로 남기보다는 결혼식과 관련하여 소비되는 용도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자원은 지난 1년간 생활비, 양육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소비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에 필요한 소비성 자금을 지원한 부모는 자녀 결혼 후에도 생활비, 양육비 등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기간 16년 이상인 기혼여성들은 신혼집을 스스로 마련한 경우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람들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신혼집 마련과 결혼비용을 지원한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16년 보다 이전에 부모가 신혼집 마련과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것의 효과가 현재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경제자원 이전의 호혜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른 형태의 자원이전이 경제자원 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개의 경제자원 수혜 모형에서는 결혼기간 5년 이하

〈표 6〉 기혼여성 가정과 부모와의 경제지원 이전: 결혼기간에 따른 영향요인 비교

독립·통제 변수 (준거집단)	경제지원 수혜				경제지원 제공				
	결혼기간 5년 이하 (n=441)		결혼기간 16년 이상 (n=717)		결혼기간 5년 이하 (n=441)		결혼기간 16년 이상 (n=717)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독립 변수	신혼집(부모도움)	.082	1.086	.618 **	1.855	-.127	.881	-.305 ***	.737
	결혼비용(부모도움)	-.478 *	.620	.000	1.000	.067	1.069	-.247 *	.781
	양육지원수혜(없음)	2.487 ***	12.022	2.100 ***	8.170	.624 *	1.867	-.450	.638
	가사노동수혜(없음)	1.261 ***	3.529	2.130 ***	8.416	.214	1.239	1.080 ***	2.944
	경제지원제공(없음)	-.572 *	.565	-.790 ***	.454				
	경제지원수혜(없음)					-.540 *	.583	-.832 ***	.435
개인	연령	.009	1.009	-.053	.948	.085 ***	1.088	.065	1.067
	교육수준(고졸이하)	.110	1.116	.398	1.490	.245	1.278	.148	1.159
	취업(비취업)	-.591 *	.554	-.177	.838	.226	1.254	-.084	.920
	가구소득(ln)	-.612 *	.542	-.659 **	.518	.151	1.163	1.029 ***	2.799
가계	집소유(무주택)	.114	1.121	-.666 **	.514	-.089	.915	-.421 **	.657
	가구원수	-.010	.990	-.293 *	.746	-.178	.837	.025	1.026
	취학전자녀(없음)	1.024	2.784	-.281	.755	1.248 *	3.483	.821 **	2.273
	초등자녀(없음)	1.061	2.888	.269	1.309	1.069 *	2.913	-.102	.903
부모	부생존(사망)	.503	1.653	-.159	.853	-.631 **	.532	-.312 *	.732
	모생존(사망)	-1.077 *	.341	-.493	.611	-.918 *	.399	.758 ***	2.134
	시부모생존(사망)	.305	1.356	.088	1.092	-.682 **	.506	-.511 ***	.600
	시모생존(사망)	-.362	.696	.400	1.492	-.850 *	.428	.493 **	1.638
상수항	1.014		5.220		-.2691		-.9133		
모델 χ^2	220.84***		325.60***		42.68***		89.325***		
-2 log likelihood	371.60		480.244		473.59		888.034		
Nagelkerke R ²	.533		.541		.134		.158		

*p<.1 **p<.05 ***p<.01

와 16년 이상 집단에서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은 경우, 가사노동 도움을 받은 경우 각각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또한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는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경제자원 제공 모형에서는 결혼기간 5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은 경제자원을 수혜한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낮았다. 결혼기간 16년 이상인 기혼여성들이 가사노동 지원을 받았다면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으며, 경제자원을 수혜한 경우는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20-44세의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원 수혜 모형들을 살펴보면, 결혼기간 5년 이하인 기혼여성은 취업한 경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할 경향성이 낮았다. 결혼기간 16년 이상인 기혼여성들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경제자원 제공 모형을 살펴보면, 결혼기간 5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양가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결혼기간 16년 이상인 기혼여성들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친부, 시부가 사망한 경우, 친모, 시모가 생존한 경우에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20-40대 기혼여성 가정과 양가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경제자원 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이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장기적 경제자원 이전의 호혜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호혜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거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경우 결혼기간이 16년 이상인 기혼여성 가정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20-40대 기혼여성 가정과 양가 부모와의 경제자원 이전의 흐름은 기혼여성의 연령이 증가하고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 비율보다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결혼기간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받기 보다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의 양가 부모는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태에 있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있다. 중노년기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의 호혜성은 선행연구들(고선강, 2008; 고선강, 2012)에서 발견하였으나, 20-40대의 성인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이 호혜적 성격의 행동임을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관련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은 검증되었으나, 지원의 규모, 부모의 경제적 수준, 자녀의 기대 등을 고려한 내용적인 측면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시하기 어렵다.

중년기의 부모들은 직장에서의 은퇴와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이 시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하므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부모역할 수행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김순미·고선강, 2012). 전반적인 초혼연령의 상승은 자녀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는 부모가 은퇴한 후 소득이 하락한 시기에 자녀가 결혼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자녀의 결혼은 신혼집 마련과 제반 결혼비용에 큰 목돈을 필요로 한다. 자녀 스스로 신혼집과 결혼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장기적으로 자원이전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모가 자녀의 결혼관련 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부모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기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단기간에 부모와 자녀의 경제자원 이전의 호혜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1년 이내에 경제자원을 수혜 받은 경우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았다.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 받은 기혼여성 가정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낮았고, 기혼여성 가정이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일정 기간 동안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기간의 경제자원 제공과 수혜는 자원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이 더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즉 자녀의 경제수준이 낮아서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 연구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자원이전 행동의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한 부모는 자녀의 결혼 초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지원은 경제자원, 양육지원,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총체적 지원이었다. 자녀의 결혼은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한 경우 자녀의 결혼 후에도 5년까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양육지원, 가사노동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향이 높아서, 결혼한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는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 생활의 다양한 부분까지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0-60대 부모들은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확장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신의 노후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측면, 생활의 측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전반의 다방면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준비된 노년을 위해서 현재의 중년층과 노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자녀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결혼식 관련 비용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 후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지원정책,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성진·전형준(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2)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3)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4)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5) 고선강(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6)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7)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8)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9)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10)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여성가족부(2011). 2010 가족실태조사.
- 12)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이소영(2011). 세대간 자원이전측면에서 연령대에 따른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 변화추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205-216.
- 14)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15)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0), 167-199.
- 16) 통계청(2012). 2011 혼인 및 이혼 통계. kosta.go.kr.
- 17) 한국경제신문(2012.6.26). 은퇴앞둔 베이비부머들 자녀결혼 두려워.
- 18) 한민아·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19) Henretta, J.C., Hill, M. S., Li, W., Soldo, B. J., & Wolf, D. A. (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ransf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20) Koh, S., & MacDonald, M. (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21)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P. G. Boss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 A Contextual Approach*(385-411). NY : Plenum Press.

- 투 고 일 : 2012년 6월 30일
- 심 사 일 : 2012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7월 31일